

하나님의 다림줄 11강

주님의 형상 속으로 (2)

- 브루스 & 바버라 톰슨 [내 마음의 벽]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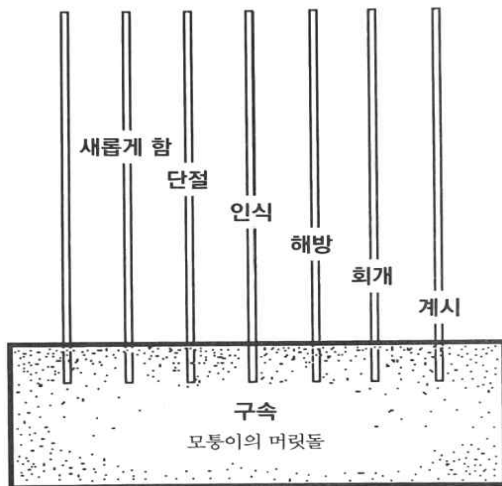
6.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ana (뒤로, 다시) Kainos (새로운 , 다른) 아나카이누 anakainoo
= 다시 새롭게 만든다. 새로운 과거 혹은 배경을 가진다

-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음.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발생하여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과 태도는 바꿀 수 있다
-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현재의 영향력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것

구원의 벽

느헤미야 = 회복
에스라 = 화해



< 마음을 치료함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 시 34:18, 사 51:15, 61:1, 눅 4:18
-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회복을 상징하듯이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바로 그 나무, 그 십자가로 우리는 회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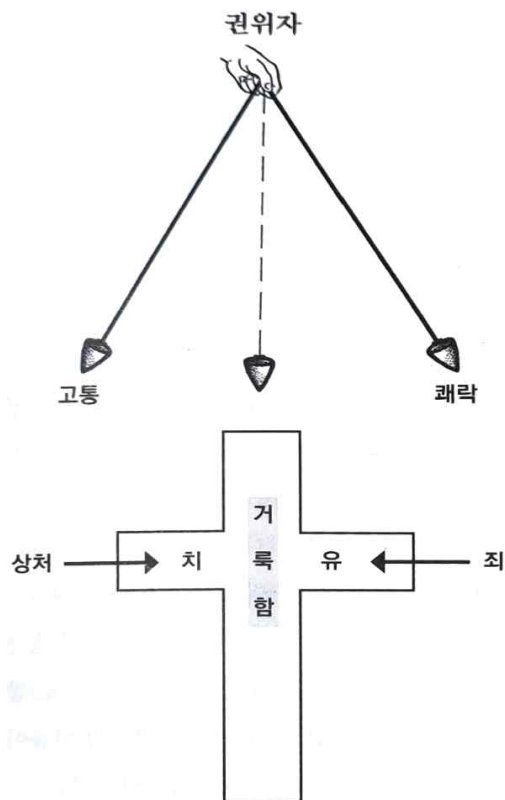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5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 베드로전서 2:24 -

- 고통과 쾌락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그 움직임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멈춰짐
- 이 짐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려다가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한 죄의식과 원망, 우리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에 압도될 것임
-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와 고통과 아픔을 대신 겪으셨음



< 새롭게 되는 과정 >

-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인정

- 내면의 상처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조종의 한 형태임. 상처를 억압해도 우리는

건강치 못한 감정적 에너지를 속으로 쌓아두게 됨

- 상처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님. 상처의 처리방법에 따라 죄가 될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자신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예> 예수님의 겿세마네 고통

(2) 믿음

-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치유하실 것도 믿어야 함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꺼이 가져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함

(3) 고백

- 치유는 성령님의 역할이며 그분이 하시는 작업임 따라서 나의 삶의 각기 다른 단계와 시기로 돌아가 충분히 머무르며 기도하고 믿음의 눈물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표현한 후 그 상처의 기억을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로 만든 치료의 향유로 바꾸어라
-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그분께 열어보이기로 선택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실 수 있음.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임

(4) 갈망

- 우리는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해야 함
- 어떤 이는 상처에 양분을 주어 더 키우기를 좋아함. 그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함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함.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5) 연습

- 경건의 연습 - 옛 반응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새 반응을 대치하는 연습
 - 유발된 사건 -> 그 사건에 뒤따르는 느낌 -> 행동의 결정 -> 신념체계
- 우리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우리의 옛 모습 - 습득된 행동반응을 버리고 새 모습을 입을 수 있음

※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기

- 진리는 말해야 함
- 분노는 통제해야함
- 도둑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야함
- 혀는 길들여야함
- 친절은 확대해야함

: 회개, 지속적인 고백, 정직이 동반해야함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을 닮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심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반응을 덧입는 것을 치유와 동반해야 성장하며 참된 치유로 나아갈 수 있음

(6) 용서

-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 자가 되고 용납받지 못한 자는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됨
- 많은 이들은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삶에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용서를 가져다주지 않았음
-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후에야 의미가 있음
-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음

(7) 성장

- 영적인 젖을 먹는 상태를 졸업하고 진정한 영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 안에서 서로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함

(8) 도움

-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며 점검하지 말고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림
- 우리가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볼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겠다고 약속하심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 사 58:10~11 -

7. 재건

- 구원이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벽에 계속 세워질 것임을 나타내는 철근
-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 문들을 구원의 벽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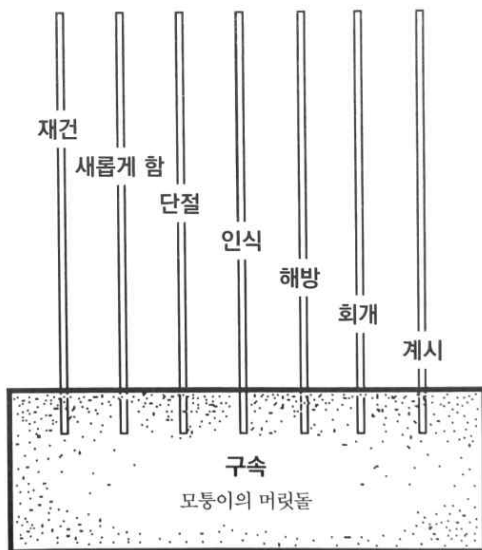
< 문을 지키기 >

- 삶 속의 문을 주의해서 지켜야함
-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쉽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잠 4:23 -

구원의 벽

느헤미야 = 회복
에스라 = 화해



(1) 양문 - 정문

- 우리도 양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야 우리 기업에 참여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음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문으로 오가며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구세주와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야 함

(2) 어문 - 전도

-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대위임령에 해당
- 우리는 모든 기회를 동원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함

(3) 옛문 - 축출

- 거듭나지 않은 옛 사람은 반드시 축출해야함

-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 골 3: 10 -

-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옛 자아를 축출하는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4) 골짜기문 - 평가

- 시험과 연단의 장소에서 우리는 우리결단을 더 강하게 하고 마음과 동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음

(5) 분문 - 배출

- 우리 인생의 죄를 포함한 쓰레기들에 걸려 넘어질때마다 분문으로 가서 한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배출해야함

(6) 샘문 - 충만

- 우리가 샘문에서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실 것임
- 성령님은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 스 4:6 -

(7) 수문 - 씻어냄

- 매일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진리안에서 나를 씻어냄으로 매일 저지르는 죄의 얼룩으로부터 깨끗함을 지켜야함

(8) 마문 - 짐을 벗음

- 우리의 걱정, 죄책감, 죄악, 분노, 상처등을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는 곳
- 주님은 그 짐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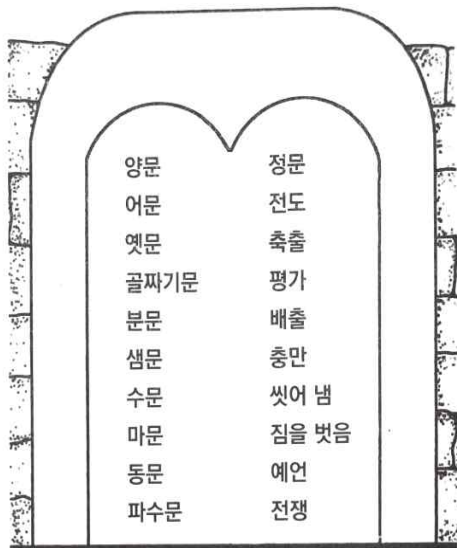
(9) 동문 - 예언

- 우리는 미래에 관한 예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세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깨달을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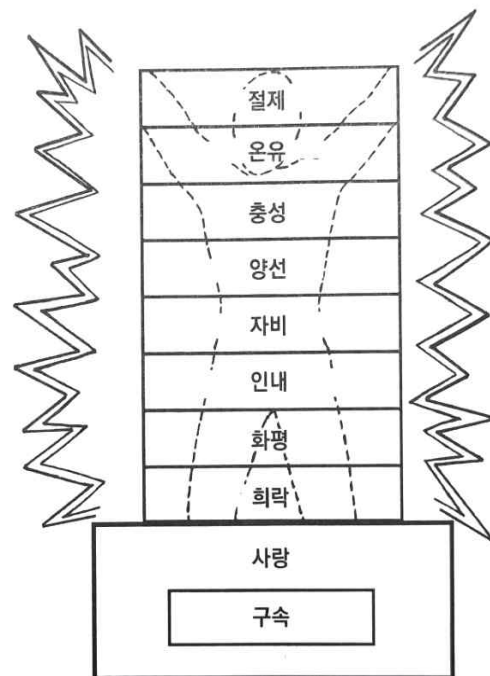
(10) 파수문 - 전쟁

- 경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굳게 서라
-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원수의 진을 파하는 강력함으로 무장해야함
- > 우리는 이 문들이 성벽의 제 위치에 잘 자리잡게 만들어야 함
- 다윗의 질문 " 영광의 왕이 누시뇨? " 이 울려퍼질 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길을 안내해야함

예루살렘의 성문



구원의 벽



< 영광의 왕 >

-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
- : 구원의 벽에서 사랑은 모든 벽을 세우는 모퉁잇돌이 됨
- 영광의 왕의 성품 :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 영광의 왕이 우리 삶 속에서 거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 그리고 우리의 온전케 된 인격 안에서 구원의 벽이 형태를 갖추게 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엡 4:13 -

결론

-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사단이 어떻게 인간적 다림줄을 따라 거절과 반항이라는 불안정한 벽을 세우게 하는지 공부했음
- 우리는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고 처리한 후 하나님의 다림줄을 새로이 내려 수용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과 본질의 구원의 벽을 새롭고 튼튼하게 세워야 함
-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도록 허락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함
- >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받으면서 힘과 축복을 얻고 온전함과 기록함 또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임
- >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안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도구이자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임
- >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견고한 도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임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사 54:11~12-